

광복절 논란

우리를 다시 위협하는 日 제국주의 망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자민당이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 벌여 온 아베 총리의 개헌운동에도 앞으로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최대 목표는 평화헌법 제 9조를 바꾸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데 있다.

광복절에 또 다시 일본을 본다

彌山(수필가)

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극우 군국세력들은 천황을 실권 없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만 규정하고, 무력에 의하지 않는 평화를 표방하는 이 평화헌법에 적개심을 가지고 일찍부터 헌법의 개정을 주장해 왔다. 옛그제 아소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이 독일 나치 정권이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한 수법을 배워 개헌을 추진하자고 한 것은 이들 극우세력들의 '흔네(本音-속내)'를 드러낸 사건이다.

紘而爲宇-천하를 덮어 내집으로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는가)라는 구절인데, 일본 일련종의 국주회(國柱會)를 창립한(1914) 다나카 지카구(田中智學 1861-1939)가 이런 용어로 만들었다. 다나카 지카구는 일련종 사람으로 1911년 '일본국체학'을 주장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를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불교와 국가는 하나라

일본 극우 평화헌법 개정

'팔굉일우' 야심...경계해야

고 하면서 일본 제일주의를 내세웠고, 특히 <불교부본론> <승려육식대처론>을 저술하여 이의 국가공인을 주장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과거 일본인들은 '팔굉일우(八紘一宇)'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면서 조선, 만주, 대만, 중국을 침략했던 것이다. 이것이 '대동아전쟁'으로 '팔굉일우'라는 그들 나름의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지른 만행이다.

1940년에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1891-1945 왕실최고가문 출신) 일본 총리가 "황국(일본제국)의 국시는 팔굉일우로서 천황을 위해 전세계(八紘)를 하나의 집(一宇)으로 만드는 데"고한 시정 방침 연설에서 그들이 대동아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 할 수가 있다.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덴노의 신국(神國)이라 믿고 이처럼 '팔굉일우'를 국가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그들의 덴노 치하에 두려고 하는 야심을 영원히 버리지 못할 것이다.

아베 총리 개헌의 속셈도 이러한 '팔굉일우'의 황국사관에 철저히 의존해 있다. 8월은 우리 한국인에게 광복의 달이다. 일본 제국주의 '팔굉일우'의 사슬에서 풀려난 달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고, 공산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다시 '팔굉일우'의 야망을 펼치려한다.

싸움질에 정신나간 우리의 정치인들이여, 아베의 야심과 일본 군국세력들의 성장을 그대들은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社說

템플스테이 세계속으로 발돋움하자

한국불교의 대표적 아이콘 템플스테이가 사회공익적 가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최근 발간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조사, 연구한 것으로 객관적 조사 결과라는 데 의미가 크다.

이다. 특히 우리 불교에서 개발한 템플스테이가 이런 역할을 탄실하게 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포교 수단으로 가는 기대가 크다. 실질적으로 템플스테이는 시행한지 10년을 넘어서면서 프로그램들도 다채로워지고, 참가자들도 국적을 초월해 다양해졌다.

특히 한국적 전통문화체험, 생태 친화적인 식생활 습관 형성, 한국 전통문화 및 역사 이해 증진 등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가치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시말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중요도 조사에서도 템플스테이는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도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산사체험 수준을 넘어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장하는 쉼(休)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렇다보니 아예 여름 휴가를 템플스테이로 보내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런 반응과 추세라면 이제 템플스테이는 우리 한국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닌 세계속에서 한국불교를 포교하는 방편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성이 생겼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한다면 세계인들에게 남방불교의 위빠사나나, 티베트 불교의 오체투지 및 명상 등과 견줘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다.

치열한 경쟁과 하루가 다르게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그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이들을 보듬고 위로해주는게 종교 본연의 역할

'나눔의집·평화의집' 더 해야 할 일

68주년 광복절이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외친 지도 반세기하고 18년이 지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일 간의 해묵은 역사 청산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위한 지원과 의료 복지 등을 위해 창립했으며, 최근에는 비핵운동으로 활동을 넓혀 매년 국제 평화대회를 개최 중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이후 급속히 보수화되고 있고, 극우세력들의 망언과 망동도 이전 시기보다 수위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 사회를 살펴봐도 안타까운 점이 많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육일승천기를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로 버젓이 사용하고,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청소년들은 우리네 역사사식의 현실이다.

두 단체의 공통점은 한국불교가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위안부 쉼터의 경우 기독교는 지난해가 돼서야 별도의 시설을 만들었으며, 원폭 피해 자녀를 위한 지원 시설은 국내에서 불교계가 유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나마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원폭 피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쉼터인 나눔의 집은 1992년 설립해 불교계가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속제는 산적해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경우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그들의 '한(恨)'을 풀 수 있는 역사적 평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보상과 복지 제도가 빈약한 원폭 피해 2, 3세대를 위해서는 지원을 명문화한 특별법과 요양 센터가 절실하다.

합천 평화의 집은 2010년 3월 불교계 구호단체인 위드아시아가 원폭 피해 자녀들을

불교계 역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본 불교계의 양심적 인사들과 함께 역사 청산의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된다.

불자 세상보기



선업 스님
차량명상치유센터 원장

최근 유명 PD의 자살 사건과 함께 단체 활동금 마련을 위해 '자살 이벤트 및 퍼포먼스'를 하다가 불귀의 객이 된 모 단체 대표의 사례는 '위기와 자살 그리고 생명경시 해소'라는 과제를 사회에 던지고 있다.

관련된 위기를 실존적 위기라고 한다.

이런 위기에 처한 개인은 낮은 자존감을 기반으로 "혼돈, 격정, 절망, 분노와 같은 감정을 동반하는 격심한 정서적 혼란"과 더불어 심리적 약화, 방어기제의 위축, 문제해결 및 대처능력의 심각한 약화를 경험하게 된다.

구분이라는 뜻을 갖는 'Krinein'에서 유래되어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대처하기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결과 가 나올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뜻하고 있다.

특히 '자살 예고'의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 의지를 드러내거나, 분노·슬픔 등의 감정을 죽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드러내거나, 나의 힘든 상황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러내거나, 주변과 지인에 대한 심경을 정리하려는 생각에서 자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결심에 대한 재확인을 하고 결국에는 실행에 옮기기도 하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된 예는 초기불전의 《장노니계》에 나오는 사하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위기(危機)라는 단어는 동양에서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공존하는 현상, 즉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영어로 위기(crisis)는 상황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

개송에 의하면 사하 비구니는 "정진을 갖지 못하고 번뇌에 사로잡혀 쾌락적인 생각만 60여명으로부터 벗어나 지를 못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라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다가 새끼줄을 구해 들고 숲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비참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이만 목을 매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마음의 해탈을 얻는 큰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살 위기에서 벗어나 모범이 되는 수행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스님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물어 보았을 때 스님은 "숨이 확 막히는 위기의 순간에

확 쥐고 있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불살생의 의미와 스스로의 존귀함을 자각하는 기회가 된 것은 아닐까?

또한 부처님 재세 시에도 교단 내에 자살이 늘어나는 위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다. 율장에 의하면 당시 수행자들 중에 부정 관수행에 대한 오해로 자살한 이들의 숫자가 무려 6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즉각 부정관 수행의 목적을 바로 잡아 주시고 스스로 자살이나 남의 목숨을 해치거나, 남을 시켜 그렇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모두 금하는 불살생계(不殺生戒)를 제정하여 교단의 혼란을 막고 대중들이 다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있다.

사회가 위기를 강제하는 요즈음, 위기에 접착한 이들이 "풀 한 포기에도 존엄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삶이 있음"을 자각하고 또 다른 삶이라는 선택적 기회를 살려 빛나는 날들을 누리고 살았으면 한다.

위기는 기회...새로운 삶 '시작'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동점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뒹뎀)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려면 누구나 기iban
나만의 편안하게 기iban
기iban
기iban
기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기iban
수련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영원한 기iban
기iban
기iban
기iban